

최근 경제동향과 정책대응

-경제기획원-

1. 최근 경제동향

(1) 경제성장

- 제조업중심의 설비투자가 활발해지고, 산업생산 및 수출이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 또한 민간소비와 건축활동이 지난해에 이어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 경제성장률은 당초예상한 7%수준을 훨씬 상회할 것으로 예상됨.
 - 오히려 건설투자 과열에 따른 人力難, 자금난이 완화되지 않고 있음.

(2) 물가상승추세

- 소비자물가가 1/4분기까지 4.9%가 상승하였으나 4월에는 0.5%로 상승세가 둔화
- 5월이후의 물가전망
 - 농산물의 盛出荷期가 시작되고 공공요금인상의 물가파급 영향이 거의 해소
 - 무주택근로계층의 가장 큰 불만요인이라 할 수 있는 소형 아파트가격과 집세의 상승도 금년부터 實入住 가능한 주택건설물량이 약 60만호에 달하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안정을 기대할 수 있음.

(3) 국제수지

- 금년 1~4월중 수출은 12.4%가 증가한 212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수입은 26.7%가 증가한 268억달러를 기록하여
 - 무역수지적자가 예상보다 확대되었고,
 - 1/4분기중 국제수지적자가 약 39억달러에 달

하였음.

- 1/4분기 수입증가요인
 - 원유도입의 증가(70.8%)
 - 설비투자 증가에 따른 기계류등 자본재 수입의 증가(20.2%)
 - 건축자재의 수입증가와 지속적인 소비증가에 따른 소비재수입의 증가

(4) 통화량

- 총통화는 1/4분기말 19.4%(4월중 17.9%)가 증가하여 당초목표 수준에서 관리
- 그러나 업계의 왕성한 자금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여 자금난과 시중금리상승 초래
 - 더욱이 작년이래 증시차대국면이 지속되어 직접자금조절이 부진

(5) 종합진단

가. 전반적인 경제동향

- 경제성장은 지난해에 이어 계속 높은 성장추세에 있고
 - 특히 산업생산 및 수출회복에 따라 성장의 내용과 구조도 개선추세
- 물가도 4월부터 안정추세에 들어가기 시작하였고, 5월들어서는 전년동기대비 한자리수 물가가 유지되고 있음
 - 특히 소형주택가격 및 집세도 하반기부터 안정 예상
- 통화량도 당초 관리목표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음.

나. 불안정 요인

- 민간소비, 건축활동이 물가상승압력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고 국민들의 인플레이션대 심리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
- 국제수지관리에 있어서는 1/4분기중에는 원유도입증가등 특수요인이 있었으나 건축자재 및 소비재의 수입증가가 계속 될 경우 적자확대 우려
- 특히 최근의 사회불안요인은 회복추세에 있는 경제활력과 산업평화 유지등에 악영향 우

려

2. 대응정책

-정부는 물가와 국제수지등 안정기조의 早期定着과 제조업 활력회복을 위하여 그동안 국민에게 제시한 시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하고 집행단계에서의 실효성제고에 주력하면서 다음의 시책을 추진

- (1) 향후 경제정책운용의 기초는 내수과열을 진정시켜 물가안정과 국제수지개선에 중점
- (2) 경제성장은 제조업중심의 내실있는 성장이 도모되도록 자금흐름, 인력수급, 선별적 S-OC투자 확충을 추진
- (3) 통화량은 연초전망치인 17~19% 범위내에서 신중적으로 운용하되 금리를 자율화(재무부)
- (4) 5.3 건설경기진화대책의 실효성있는 추진
 - 민간건축활동의 지역별·용도별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규제조치의 실효성 확보(건설부)
 - 건축허가 및 착공제한토지에 대한 土超稅 과세 유예조치(재무부)
 - 시멘트등 건축자재의 수급에 만전(상공부)
 - 정부 및 투자기관 공공건축활동의 엄격한 규제(경제기획원)
- (5) 한자리수 자금의 早期妥結
 - 현재 시국불안으로 민간기업의 임금타결이 지연될 우려가 있으나 대기업과 선진기업을 중심으로 조기타결 유도(상공부, 재무부 등)
 - 노사화합 대회사 약속한 근로자복지대책을 5월 말까지 확정발표(노동부)
- (6) 사회간접자본과 환경문제 해결등 시급한 投資所要에 대응하기 위한 제2차 追更豫算編成(경제기획원)
- (7) 원유진입가격의 추세를 감안한 국내유가조정의 조속한 검토(동자부)

※최근의 사회불안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관계부처는 합심하여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주력

직장인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단독 또는 복합적으로 보며 직장 안팎으로부터 온다. 갖가지의 자극과 정보를 대뇌가 일시에 처리할 수 없게 되면서 스트레스 과잉이 되고 무기력, 압박감, 수면부족, 초조감, 대인관계의 부조화 등 정서 장애가 나타난다.

스트레스는 밖에서 가해진 자극에 대한 적응 반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자극이 대뇌를 거쳐 간뇌에도달하면 그 곳에서 호르몬이 분비된다. 간뇌에서 분비된 호르몬은 뇌하수체-부신피질계를 거치면서 적응 호르몬을 분비, 전신방위에 들어간다.

이 전신 방위는 첫번째 '경고반응'을 보이고 계속 자극이 가해지면 저항기로 이행한다. 자극이 계속되고 더욱 강화되면 힘을 다 쓰고 손을 번쩍 드는 꼴이 되는 '피비기' 상태가 되고 이렇게 되면 위가 충혈돼 위양이 되거나 고혈압, 협심증 등의 기질적 질환으로 쓰러지고 만다. 이것을 스트레스병이라 하고 관리직에 있어서 매니저(manager)병이라 부른다.

스트레스로 인해서 늘 초조해하거나 어깨결림, 어지러움, 두통, 위장 장애, 혈관 이상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다. 또 직장 부적응증도 보여 사고를 내거나 결근, 지각, 조퇴를 되풀이 하는 증상을 보이기도 한다. 이럴 때 욕구불만이 해결되지 않은 채 부적응 장애가 계속되게 되면 노이로제 상태에 빠지거나 잠재해 있던 정신분열증이 나타날 위험도 안고 있다.

이러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는 가정이 차지하는 역할이 크다. 직장에서의 피로나 불만을 감싸주는 따뜻하고 원만한 가정과 귀가하는 남편을 밝게 맞이하여 기운을 돋궈주는 것도 피로를 없애주는 원천이 된다.

기분 전환이란, 사용하고 있던 대뇌피질의 중추부를 변경하는 것을 말하는데, 눈을 지나치게 써서 피로했을 때에 음악을 들으면 기분이 가라앉는다는 것은 시각 중추를 쉬게 하고 청각 중추를 새로 일하게 하기 때문이다. 대뇌 피질의 억제를 제거하려면 적정량의 술을 마시고 담소하거나 쉬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다. <럭키 금성>